情報化 社會에 投資

세계적인 정보화의 물결 속에 우리나라의 情報産業도 짧은 역사 동안 놀라운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반도체 통신 컴퓨터 분야 등에서의 활발한 신기술 도입과 적극적인 산업사회 전반에서의 응용은 혁신적인 전자문명의 혜택을 우리 모두가 만끽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실현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국가 주요산업의 하나이며 이와 관련된 정보산업의 발전 없이는 국제경쟁력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는데 이는 모든 국민이 올림픽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지만 경기를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올림픽 전산화"의 효과도 무시못할 정도로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日照했다고 자타가 認定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도 정보화 사회를 진입하는 기반을 다진 해로 기록될 수 있다.

앞으로 정보화 사회가 도래되면 '물적풍요'보다 '심적풍요'의 욕구가 증가되는 풍요로운 새 시대가 올 것이며 무형의 가치창조와 가치생산분야의 신장이 확대되어 1988년 일본의 자료에 의하면 부가가치 생산액으로 본 산업동향에서 명목 GDP 구성비가 물적생산부문이 1970년도에 51.6%에서 2000년이 되면 36.8%로 감소되는 반면 소프트웨어 부문이 1970년도에

鄭甲錫
(주)S.B.K 상무이사

48.4%에서 2000년이 되면 63.2%로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점점 소프트웨어화하는 산업 경제로 발전될 것이다.

또 한편 일본의 경우 1988년도에 설비투자의 25% 즉 GNP의 4.3%인 약 14조엔을 情報化産業에 투자하여 그 투자액이 해마다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보시스템 부문의 投資規模는 "전략정보 시스템"(S.I.S)을 지향하는 선두 USER GROUP은 매출액의 3% 정도를 시스템 부문의 총비용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일반회사들은 매출액의 0.75%를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수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매출액의 1% 이상을 정보시스템 부문의 총 비용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매출액의 0.5% 정도 투자가 평균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정보시스템이 타사에 비해 앞서가고 있다는 회사들이 0.70.8% 정도로 일본의 평균 수준밖에 투자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H/W도 도입하고 전산 요원도 부단위 조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매출액의 0.2~0.3% 미만을 전산비용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고도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려면 정보시스템 부문에 아직도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